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감시소에서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시험발사계획을 청취하시고 시험발사를 진행할데 대한 명령을 주시였다.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시험발사는 탄도로케트의 최대사거리를 모의하여 고각발사체제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천둥같은 폭음을 터뜨리며 자행발사대를 리탈한 탄도로케트는 예정 비행궤도를 따라 최대정점고도 1,413.6km까지 상승비행하여 400km 전방의 예정된 목표수역에 정확히 락탄되였다.

시험결과 체계를 현대화한 우리식 탄도로케트의 비행동력학적특성과 안정성 및 조종성, 새로 설계된 구조와 동력계통에 대한 기술적특성이 확증되였으며 재돌입구간에서의 전투부 열전담특성과 비행 안정성도 검증되였다.

이번 시험발사를 통하여 앞으로의 전략무기체계개발을 위한 확고한 과학기술 적담보를 마련하게 되였다.

전략무기의 이번 시험발사는 주변국가의 안전에 사소한 영향도 주지 않고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시험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국방과학부문에서 70일전투때와 마찬가지로



담보하려면 우리도 적들을 항시적으로 위협할수 있는 강력한 공격수단을 가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선제핵공격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나가며 다양한 전략공격무기들을 계속 연구개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의 핵무력이 상대해야 할 진짜 적은 핵전쟁 그자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미제의 핵위협으로부터 조국과 인민과 우리 혁명을 보위하기 위하여 핵공격능력을 부단히 키워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번 시험발사는 우리 국가의 핵공격능력을 더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고 하시면서 전략적핵무력에 대한 유일적령도와 유일적판리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어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시험발사의 성공을 축하하여 시험발사에 참가한 국방과학전사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국방과학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오늘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분발하여 떨쳐나 전략적공격수단들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며 국방과학연구와 군수생산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일으켜나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동방의 핵강국이 된 공화국의 위상에 세계가 놀라움과 찬사를 금치 못해하고 있다.

『역사에 드러나는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의 전력에 당당히 올라섰으며 불패의 군력을 만천히 과시하였다.』, 『조선은 수소탄시험에서 성공함으로써 핵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하게 되었다.』, 『조선민족은 북조선의 수소탄보유로 하여 더욱 강한 민족으로 되었으며 남조선 사람들은 더는 핵참화의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게 되었다.』...

폭발력이 크면 그만큼 진동도 크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최악의 공포와 전률에 휩싸여 있는 반면에 우리 겨레와 진보적인류는 기쁨의 찬사를 터뜨리고 있다.

동방의 나라 조선이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강국이 되리라 누가 상상이나 하였는가.

지금으로부터 100여년 전 사대가 국도에 달하였던 조선봉건왕조 말기의 현실에 대해 어느 한 문인은 이렇게 서술한 바 있다.

『...저 해양너머의 식민주의자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제멋대로 별명지어 〈동방의 은둔국〉이라 부르는 이 나라—조선의 밤은 길었다.

...조국의 운명과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고 국가백년의 대계를 세울 때는 바로 이때만만, 이 나라 땅반네들의 잠은 좀처럼 깨줄을 모른다.

대체 어찌 할 작정인가? 그냥 잔다. 세상 모르고 그냥 자고 들만 있다. ...』

어제 날의 그 조선이 오늘 동

평양시교외에 김치를 공업적 방법으로 생산하는 현대적이고 능력이 큰 류경김치공장이 새로 건설되었다.

얼마 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그 공장을 현지지도 하시였다.

그날 김치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며 생산공정으로부터 설비들의 기술적 특성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 김치를 인민들 속에서 호평 받는 인기식품으로 만들도록 할 때 대하여 이르시였다. 그이의 가르침에는 민족전통음식의 고유한 맛이 살아나고 영양가가 높은 김치를 많이 생산하여 형양시내의 상업봉사망들과 시민들에게 보내주어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적극 도모하도록 할 때 대한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

김치는 우리 인민이 즐겨 먹는 맛있는 식찬의 하나이다. 아무리 친구한 음식을 다 갖춘 밥상이라 하여도 빼지지 않는 것이 김치이고 기름진 고기를 먹어도 김치를 결들이고 떡이나 지짐 같은 것을 들어도 김치국을 같이 마시는 것은 우리 민족의 오랜 식생활 풍습이다.

김치는 백김치, 깍두기, 박김치, 통김치, 석박지, 동치미, 보쌈김치 등 수십여 가지나 된다.

총각김치라고 하면 조상전래로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쪽지방에서 채여 물지 않은 어린 무우로 담그어 오는 김치의 일종이다. 그런데 한때 사람들 속에서는 총각김치가 빨간 무우 김치로 불리운 적이 있다. 언제인가 이 사실을 아신 위대한 김정일장군께서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연한 잎줄기가 붙어 있는 어린 무우로 만든 김치를 총각김치라고 불렀다고 하시면서 그대로 부르도록 하라고 이르시여 지금과 같이 총각김치라는 말이 되살아나게 된 것이다. 그이께서 우리 인민들이 뼙을

동방의 핵대국으로 빛나는 조선

방의 핵대국으로 솟아오른 것이다.

동방의 핵대국, 이것은 결코 세월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라 선군의 길을 개척하시고 빛나게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그 애국의 위업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변함없이 계승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정도가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한 민족의 힘은 그 민족을 이끄는領導자의 위대성에 달려 있으며 위인의 정도를 받을 때 그 민족은 세계에 빛을 뿐 될 수 있다.

일찌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미제의 가중되는 침략위협과 고립압살책 동으로부터 조국과 인민을 지키자면 자기를 지킬 강한 무기를 가져야 하며 그러자면 선군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천리혜안의 통찰력으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시고 나라의 군력강화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시였다.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준대 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 가리라는 억척불변의 신념과 사생결단의 의지를 지니시고 그이께서 혜쳐가신 조국수호와 민족안녕의 길은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련에 차고 도 간고한 길이었으며 보통의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서는 혜처할 수 없는 혐로역경이였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욱 번영할 민족의 래일, 세계에 존엄높은 강국으로 빛을 뿐일 그날을 그 누구보다도 확신하시기에 모친 고생도 달게 여기시며 선군의 보검을 얹척같이 벼리시였다.

민족이 자기를 지킬 강한 무기를 갖지 않으면 침략세력은 언제까지나 침략의 비수를 빼여들고 달려든다는 역사의 교훈, 민족이 가져야 할 힘은 오늘만이 아닌 후손만대의 삶까지 지켜주는 그런 막강한 힘이여야 한다는 그이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는 공화국을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핵보유국으로 올려세웠다.

지금도 감회깊은 주체 94(2005)년 2월 10일, 공화국의 핵보유선언이 발표되자 온 지구가 통채로 뒤흔들리였다.

남조선잡지 『말』은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단독핵권국가였다. 그러나 더 이상 폐권국가가 아니다. 동북아시아의 단독핵권국가였던 시절은 2005년 2월 10일로 이미 종말을 고하였다.』고 했으며 서방의 어느 한 신문도 『북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실패』 했다고 썼다.

공화국의 자위적 핵억제력은 또 한분의 탁월한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더욱 억척같이 다져질 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걸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 실 철의 의지를 온 세상에 선

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 101(2012)년 12월 12일 위대한 장군님의 유흔을 받들어 쇄울린 평화적인 첫 실용 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놓고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그 무슨 『제재결의』를 조작하며 긴장수위를 높이는데 대처하여 제3차 지하핵시험으로 적대세력들을 되게 다불리도록 하시였으며 세해전에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탁월한 전략적으로 선을 제시하시여 공화국의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세상을 들었다놓은 이 단호한 대응과 새로운 전략적으로선의 제시는 미국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종대로 민족의 자주권을 끌까지 지키고 빛내이시려는 철의 의지를 지니신 백두령장께서만이 내리실 수 있는 결심이고 용단이다.

그이께서 제시하신 병진로선, 이것은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공화국을 항시적으로 핵으로 위협하며 핵전쟁을 일으키려고 날뛰고 있는 준엄한 정세에 대처하여 민족의 자주권과 생명을 지키고 담보하게 하는 가장 정당한 로선이며 앞으로 영원히 인민들이 핵강국의 끊을 입으며 평화로운 삶과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병진로선이 제시됨으로써 공화국의 국방력은 비상히 강화

되었으며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인민 생활향상에서도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적인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올해 수소탄의 장쾌한 희성을 올려 핵강국의 위상을 높이 떨치었으며 각종 현대적인 타격수단들을 개발, 완성하여 핵타격능력을 보다 강화하였다.

그런가하면 이르는 곳마다에서 자강력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만리마의 기상이 나래쳐 생산정상화의 동음 높이 울리고 인민의 꿈과 리상이 더욱 활짝 꽂쳐나고 있다.

공화국에서 일어나는 이 경이적인 전변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내놓으신 병진로선이 얼마나 정당하며 그 길에 우리 민족이 잘살고 번영하는 길이 있음을 실증해주고 있다. 오늘의 이 기적, 이 전변을 안아오시려 핵무기병기화사업, 새로운 타격수단들의 개발과 시험사격, 공장과 농촌, 어촌과 사회주의 대건설장을 찾고 찾으시며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에게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힘과 지혜를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진정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련된 정도는 모든 사람들을 핵강국의 주인된 궁지와 자부심, 배짱과 자신심에 넘쳐 조국의 존엄을 수호하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이고 모든 기적과 승리의 기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사업총화 보

고에서 시대는 달라지고 우리나라의 지위도 달라졌다고, 우리 공화국이 존엄높은 자주의 강국, 핵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것만큼 그에 맞게 대외 관계를 주동적으로, 다각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동방의 핵강국, 조선은 앞으로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세계의 자주와 평화, 인류의 발전을 이룩하는데서 언제나 주도적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며 그 길에서 온갖 악과 부정의를 쓸어버리는 정의의 보검으로 빛을 뿌리게 될 것이다.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아무리 공화국의 핵을 포기시키려고 별짓을 다 해도 강자가 약자를 집어삼키고 약자는 얻어맞아도 어디 하소연 할 데도 없는 악육강식의 법칙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결코 정의의 핵보검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더욱 억척같이 벼리여갈 것이다.

세계에는 1만 5000여발의 핵무기가 있다고 한다. 이 많은 핵무기들 중에서 진짜 제국주의 침략위협, 핵위협에 맞서 인류의 자주와 정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만들어지고 억척같이 유지강화되고 있는 핵무기가 파연 조선의 핵 말고 또 있는가.

동방의 핵대국—조선은 그래서 더욱 빛나고 세인의 각광을 모으고 있다. 그 조선을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머지않아 세계는 조선을 통일 강국으로 행성에 우뚝 올려세우실 위대한 정치가, 절세위인의 빛나는 모습을 환희와 격정 속에 빼울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는 주체조선의 필승불패의 전통을 다시금 표시하자고 하신 그이의 열렬한 호소는 건설자들이 날에 날마다 전대 미문의 기적과 위훈을 냥개 한 힘의 원천으로 되었다.

어느덧 자정을 가까이 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 또 한개 층의 풀조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다. 어제와 오늘,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변모된 것처럼 오늘의 이 성과가 래일에는 더 큰 성과로 이어지며 완공의 날이 바야흐로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취재수첩을 펼치고 글의 제목을 적어나갔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다』

그렇다. 조선은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눈부시게 변모하며 사회주의 문명국의 희한한 래일을 앞당겨오고 있다.

김철진

수필

아침과 저녁이 다르다

부터 잔디를 키워야 살림집완공과 동시에 끌고 일떠세우는 기적을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기존건설공법의 요구에 비추어볼 때 오늘 공화국에서 이룩되고 있는 건설속도는 만리마의 속도이며 군인 건설자들은 만리마의 기수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들을 만리마속도의 창조자로, 만리마의 기수로 내세워주신분은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 이시다.

지난 3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과 통남산을 바라보며 조선혁명의 려명이 밝아오는 뜻깊은 곳에 일떠세우는 거리의 이름을 『려명거리』로 명명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려명거리

를 올해 중에 반드시 일떠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사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혼합물 압송기에 의한 벽체와 층막의 동시형성을 비롯한 대담한 공사방법을 도입하여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백열전을 벌려나갔다.

하여 공사 첫시기만 하여도 하루에 한층의 풀조도 올리지 못하던 그들이 5월 하순에는 20시간, 18시간에 이어



더 맛있게,
더 많아

민족음식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도모하도록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여 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민족중시, 인민사랑의 정도에 의하여 아름답게 개화발전한 민족음식문화가 오늘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정도에 의하여 그대로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족음식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도모하도록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여 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민족중시, 인민사랑의 정도에 의하여 아름답게 개화발전한 민족음식문화가 오늘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정도에 의하여 그대로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족음식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도모하도록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여 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민족중시, 인민사랑의 정도에 의하여 아름답게 개화발전한 민족음식문화가 오늘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정도에 의하여 그대로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족음식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도모하도록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여 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민족중시, 인민사랑의 정도에 의하여 아름답게 개화발전한 민족음식문화가 오늘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정도에 의하여 그대로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족음식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도모하도록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여 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민족중시, 인민사랑의 정도에 의하여 아름답게 개화발전한 민족음식문화가 오늘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정도에 의하여 그대로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족음식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도모하도록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여 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민족중시, 인민사랑의 정도에 의하여 아름답게 개화발전한 민족음식문화가 오늘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정도에 의하여 그대로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족음식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도모하도록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여 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민족중시, 인민사랑의 정도에 의하여 아름답게 개화발전한 민족음식문화가 오늘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정도에 의하여 그대로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족음식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도모하도록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여 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민족중시, 인민사랑의 정도에 의하여 아름답게 개화발전한 민족음식문화가 오늘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정도에 의하여 그대로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족음식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도모하도록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여 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민족중시, 인민사랑의 정도에 의하여 아름답게 개화발전한 민족음식문화가 오늘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정도에 의하여 그대로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성산》 상표를 단 인기있는 체육기자재들

- 평양체육기자재공장을 찾아서 -



얼마전 우리는 청춘거리 체육촌에 새로 건설된 평양체육기자재공장을 찾았다. 아담하면서도 깨끗한 건물들과 잘 조성된 둑지들, 울창한 수림을 이룬 나무들, 휴양소를 방불케 하는 휴식터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 장석하지배인은 『얼마 전 새로 현대적으로 일떠선 우리 공장을 찾으신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체육강국건설을 위해 큰일을 해놓았다고, 자랑거리가 또 하나 생겼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지배인의 안내를 받으며 제품본실에 들어선 우리는 탄복을 금할수 없었다. 질좋은 축구공, 풍구공, 배구공을 비롯한 공들과 권투장갑, 운동복, 운동기재 등 『대성산』 상표를 단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제품본실에서 우리는 공장이 걸어온 자랑찬력 사에 대해 들을수 있었다. 주체48(1959)년 4월 창립된 공장은 당시 피대선반, 프레스, 연마기를 비롯하여 크고작은 설비 30대를 갖춘 자그마한

공장에 불과하였다. 철봉이나 아령과 같은 단순한 운동기자재 생산으로 첫걸음을 뗀 공장은 1987년에 보통강구역 서장동에 새로 건설되어 여러가지 체육기자재들을 생산하였다.

그 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설될 공장의 터전을 잡아주시고 형성안과 함께 공장 건설에 필요한 건설자재들과 건설력량들을 보내주시여 오늘과 같이 화려한 체육기자재공장을 세워주시였다.

체육인들과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체육기자재들을 안겨주시려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와 혼신의 세계를 새겨안으며 우리는 공만드는 작업의 첫

공정인 토라작업장을 거쳐 내페작업장에 들어섰다. 거기서 우리는 한녀성로동자로부터 공내페에 자동적으로 실을 감는 기계의 동작원리를 파악할 수 있었다. 검은색의 공내페에 흰실들이 얼마나 고르롭게 감겨지는지 공내페가 순식간에 흰색으로 변하는것이 볼수록 멋이 있었다. 실감기를 한 공내페가 온도, 고압증

기넣는 시간, 배기시간, 흡풍기유지시간을 설정한 자동가죽붙임기를 거치고나니 몇분만에 여러 색갈의 가죽쪽들이 맵시 있게 붙여진 공으로 완성되었다.

완성다림작업까지 거친 매끈한 공을 두손으로 가볍게 훅겨보는 우리에게 지배인은 더 희한 한 구경거리가 있다며 걸음을 성큼 내짚었다. 그의 뒤를 따라 제품창고에서 걸음을 멈춰우리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다양한 종류의 공들이 그득히 쌓여있는 광경은 그야말로 공사래를 방불케 하였던것이다. 그뿐이 아니었다. 각종 장갑, 그물 등 여러가지 체육기자재들도 창고가 터질듯이 가득 차 있었다.

생산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지만 공장에서 1만여개의 각종 공제품들과 1,000여켤레의 장갑 등 많은 체육기자재들을 생산하였다니 지배인의 자랑이 결코 빙말이 아니었다.

이 공장의 자랑은 제품검사실에서도 윤려나왔다. 우리와 만난 김혁철연구사는 『우리 공장은 세계적준의 체육기자재들을 생산할수 있게

본사기자 김철호

요령방을 영체를, 영광을

누구나 『철쭉』상표 양말을 좋아한다

양말은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생활용품이다.

평양양말공장에서 생산하는 『철쭉』상표 양말들은 사용자들의 정서와 미감, 신체적특성에 맞게 잘 만들어진것으로 하여 사람들속에서 대단한 호평을 받고있다. 국내에서 진행된 여러 전람회들에서 최우수상을 수여받은 『철쭉』상표 양말은 남녀별, 나이별, 계절별로 구분되는데 그 형태와 색깔, 문양이 다종다양하다.

녀자용양말만 해도 처녀들이 좋아하는 화려한 문양의 양말도 있고 중년부인들이 좋아하는 은근하고 세련된 색갈의 양말, 발잔등은 그물모양으로 되고 발바닥은 쿠션에 잘 견디게 만든 양말, 발바닥과 발잔등이 그물모양으로 된 양말, 부드럽고 폭신한 양말 등 다종다양하다. 남자양말들도 땀을 잘 뺏아들이는 채질로 만든것을 비롯하여 색갈과 문양, 재질이 각색이다.

아름다운 무지개가 비긴듯 고운 색갈의 아동양말들에는 어린이들이 좋

아하는 너구리, 곰등어, 『키리』와 『뿌』를 비롯한 만화에서 나오는 짐승그림들도 새겨져있다.

이 공장에서의 체육인들을 위한 양말들도 만들고있다. 제17차 아시아녀자축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던 공화국의 너자축구선수들이 이 공장에서 만든 선수용양말을 신고 경기를 진행하였는데 양말의 질이 다른 나라의 것보다 뛰어나 모두가 좋아하였다. 축구선수용양말의 발목부위는 땀을 잘 빼는 섬유재질로 만들고 발바닥과 발잔등을 련결하는 조임띠를 만들어주어 운동할 때 양말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이 자본주의나라 장애자들의 불우한 처지이다. 하물며 그러한 부모들을 둔 자식들의 처지야 더 말해 무엇하랴.

본사기자 고영숙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바닥을 폭신하게 해주어 충격을 완화시켜준다.

평양양말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서로의 친조직지혜와 힘을 합쳐 시대적요구와 미감에 맞는 양말을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사업에 사색과 정열을 다 바쳐가고있다. 이들의 고심어린 노력에 의해 새로운 양말생산프로그램들이 부단히 개선되고 데트론인천사에 의한 양말생산의 국산화가 실현되어 종전보다 질감도가 좋고 다양화, 다색화된 갖가지 양말들이 많이 생산되고있다.

오늘 『철쭉』상표 양말은 인민들이 좋아하고 세계적인 품질경쟁력을 가진 제품으로 나날이 발전하고있다.

본사기자 고영숙

하지만 이 세상 행복은 저들이 독차지한듯 구김살없이 명랑한 쌍둥이의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나에게 안내원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쌍둥이의 어머니 윤정임녀성이 태여나 넉달만에 소아마비로 불구가 되었다는것, 두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그였지만 나에게 온갖 치료대책을 다

국가과학원 레이자연구소 연구사 박사 김광현

세계과학원 회원이 되는 청년과학자

『면밀한 조사와 추천, 선출과 정을 통하여 당신이 2015-2019년기간에 해당한 임기의 세계과학원 청년회원(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 선출되었음을 기쁘게 통보하는바입니다.』

지난해 7월 국가과학원 레이자연구소 연구사 김광현박사가 세계과학원으로부터 받은 통보문의 한내목이다.

여러 대륙들에 지역사무소들을 두고 있는 국제적인 기관인 세계과학원은 2007년부터 해마다 매개 지역사무소들에서 특출한 성과를 이룩한 5명의 청년회원들을 선출하고 있는데 공화국의 김광현박사가 그 중 한명으로 뽑힌 것이다.

30대의 젊은 나이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전도양양한 과학자가 된 김광현박사.

자강도 만포시의 산골마을에서 태여난 그는 강계시에 있는 제1중학교를 거쳐 리파대학을 최우수성적으로 졸업한 후 당시 세계적으로 활발히 개척되고 있던 레이자연구부문에 대담하게 뛰어들었다.

그는 조국에서의 연구사업과 유럽의 연구소에

서 제노라고 하는 여러 나라 과학자들과 어깨나란히 공동연구를 하는 과정에 레이자에 의한 3차원형태 및 치수측정장치의 연구도입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맡아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는 연구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나날 그는 레이자, 평화분야의 권위있는 국제학술잡지들과 국제학술토론회 론문집 및 개요집 등에 18건의 론문을 게재하고 국제학술토론회에서 10여건의 론문들도 발표하였다.

과학으로 조국의 영예를 떨쳐가는 그에게 나라에서는 위성과학자주택지구의 5칸짜리 새 주택도 안겨주고 활황하게 일떠선 연풍과학자휴양소의 제1기 휴양생으로 보내주었다.

지난해 세계과학원 청년회원으로 선출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날 그에게는 리승기, 계옹상선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지난해 8월 리론물리학분야에서 세계최고의 권위를 가진 국제연구소에서도 김광현박사를 자기연구소의 회원으로 임명하였다.

본사기자 흥범식



장애자녀성을 통해 본 인권면모



세워주고 따뜻이 돌봐주어 장애자로서의 설움을 모르고 살아오고 있다는 것, 다 자라 시집갈 나이에 이르렀을 때 한 청년이

찾아와 그에게 사랑을 고백했다는 것, 한뼘기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야 할 처녀의 얼굴에 그들이 질세라 일생을 같이 하려는 청년의 진정은 처녀를 감동시켰고 그후 행복한 가정을 이룬 이들사이에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것...

세상에 이렇듯 아름다운 인간들도 있단 말인가. 감동깊은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고 싶어 나는 윤정임녀성의 가정을 찾았다. 반갑게 맞아주는 그의 얼굴에서는 장애자 일반에게 흔히 볼수 있는 시름의 그늘을 찾을볼수 없었다. 엄마의 치마자락을 감도는 쌍둥이들의 모습도 나의 마음을 흥그럽게 해주었다.

장애자기정의 생활상을

시기 온 가족이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찾아 공화국으로 들어왔다. 지금도 나는 구두닦기를 하는 아버지에게 매달려 살던 우리 가정이 남녘땅에 그냥 남아있었더라면 불구자인 내 딸의 운명이 파연 어떻게 되었을가 생각하며 몸서리치군 한다. 성한 사람들도 살기 힘든 야육강식의 세상에서 장애자인 우리 딸은 펴여보지도 못한 채 불우한 생을 마치였을 것이다.』

윤정임녀성도 눈물을 머금고 말하였다. 우리 자식들은 내가 낳았을 뿐 나라에서 맡아 키워주었다고,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둔 자식이라고 고운 웃이 생겨도, 별식이 생겨도 남면서 안겨주며 친자식처럼 돌봐준 타아소 보육원들과 유치원, 소학교 선생님들, 정다운 이웃들을 대할 때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서로 도우며 화목하게 사는 우리 사회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슴적시군 한다고...

정녕 장애자에서 나라의 특별한 보호속에, 혜택 속에 살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속에 아무런 불편을 모르고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북의 현실이다. 그 현실을 통하여 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북사회의 우월한 인권면모를 폐부로 느낄수 있었다.

재미동포 고진근

6월 25일은 미국에 의해 이 땅이 참혹한 전란에 휩싸인 때로부터 66년이 되는 날이다.

일요일의 그 새벽, 전쟁도화선에 불을 달고 3년간이나 우리 겨레에게 참을 수 없는 재난을 들씌운 미국의 죄행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세기를 이어 조선민족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강요하고 있는 미국을 단호히 징벌하고 반미대결 전의 최후승리를 안아오려는 것은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공화국이 핵을 보유한 것도 그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역적패당은 민족의 존엄이고 힘 있는 공화국의 핵을 어찌지 못해 지랄발광하며 별의별 궤변을 다 내돌리고 있다.

『북의 핵개발이 남북관계개선을 해친다.』는 것도 가장 파렴치한 흑백전도의 극치이다.

얼마전 제20대 『국회』 개원

자위의 핵과 북남관계

연설이라는데서도 박근혜는 『북의 핵개발이 남북관계개선을 가로막고 있다.』 느니 뭐니 하고 떠들어댔다. 『현충일 추념사』하는데서는 『북의 핵이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악에 받쳐 내뱉았다.

북이 핵을 포기해야만 북남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떼를 쓰는 박근혜의 망발은 북남관계를 완전파탄으로 몰아간 범죄적 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한갓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박근혜야말로 동족에 대한 병적인 적대감에 핵공포증까지 겹쳐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세상사람들이 인정하듯이 공

화국의 핵과 북남관계는 아무 상관도 없는 별개의 문제이다.

남조선당국은 북의 핵때문에 북남대화도, 관계개선도 이루 어지지 못한다고 떠들고 있는데 하다면 미국의 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공화국이 자위의 핵을 가지기 훨씬 이전에 조선반도에는 미국의 핵이 출현하였다. 미국이 1950년대에 처음으로 남조선에 핵을 반입한 때로부터 그 수가 1970년대 말에 이르러 1,000여개에 달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남조선에 전개된 미국의 핵은 북을 직접 겨눈 침략의 핵으로 존재해왔다. 미국은 공화국을 『핵선제타격대상』 명단에 빠젓이 올려

놓고 핵폭탄투하연습도 뻔질나게 벌려왔으며 핵전쟁모의시험도 부단히 하여왔다.

지금 이 시각에도 미국은 『3대 핵기동』으로 자랑하는 『B-52H』 전략폭격기와 『미세씨씨피』 호위동력잠수함을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우리 공화국을 핵위협하고 있다.

북남관계와 겨레의 안전을 해치는 것은 바로 이런 미국의 핵무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남관계는 물론 온 겨레의 생존을 매일 매 시각 위협하는 미국의 핵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오히려 미국의 핵에 대하여 자위의 목적으로 만든 동족의 핵에 대해 『북남관계개선의 장애물』이라 하고 있으니 얼마나 파렴치한 현실기만이고 계면인가.

『북의 핵개발이 남북관계개선을 가로막고 있다.』는 남조선당국의 주장의 허황성은 공화국의 핵의 성격과 사명을 들어다보아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이미 루차 천명된 바와 같이 공화국의 핵은 칠두칠미자위의 핵이고 그 파녀는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부단히 위협하고 압살의 봉동이를 휘두르고 있는 미국에 향해 있다.

공화국은 자기의 핵이 동족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데 대해서도 한두번만 친명하지 않았다. 세계가 지켜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통일강국건설

을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치고 남조선당국이 대결이 아니라 통일의 동반자가 되는 길을 선택할 것을 호소하였다.

공화국의 핵은 남조선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날로 가중되는 핵전쟁발발위협으로부터 이 땅의 평화와 남조선인민들을 포함한 겨레의 안전을 지켜주고 북남관계의 자주적발전을 힘 있게 떠밀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이 남조선당국이 적대적이며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하여 보지 못하고 있는 『북핵』의 진면모이다.

공화국의 핵을 북남관계와 억지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은 지난 조선반도의 혁사를 통해서도 그 허황성이 날날이 드러나고 있다.

핵때문에 북남관계가 한치도 전진하지 못하는 것처럼 떠들지만 이미 오래전인 지난 세기 90년대부터 미국과 그에 추종한 남조선의 호전세력은 『북핵위협』을 요란스레 떠들며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소동을 부리였다. 하지만 민족의 주체적인 노력과 힘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위업을 전진시키려는 겨레의 지향과 의지에 의해 그속에서도 북과 남은 두차례의 혁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고 통일력사에 금문자로 빛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하는 사변을 이루어냈다. 막혔던 하늘길, 땅길, 배길이 열리고 각계총의 래왕과 협력으로 6.15시

대의 북남관계는 수년간이나 활기있게 전진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여주는가. 북남관계가 민족적화해와 단합으로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려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에 좌우되는 것인지 결코 공화국의 핵보유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공화국의 『핵포기』를 북남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남조선당국의 무지막지한 망동은 결국 대화도 안하고 협력도 안하며 북남관계개선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내외가 한결같이 평하듯이 오늘 북남관계개선의 기본장에는 남조선친미보수파당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동족대결책동이다. 그들이 『북의 핵포기』를 목이 터져라 쳐쳐대고 있는 진짜목적은 동족을 무장해제시켜 체제대결, 『흡수통일』의 어리석은 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것이다.

이 비렬한 목적달성을 위해 리명박은 『비핵, 개방, 3,000』을 내세우며 6.15의 공든 탑을 모두 무너뜨리고 대결의 한파를 몰아왔으며 현 남조선집권자역시 북남관계를 완전파국상태에 몰아넣고 동족의 목을 조이려고 『제재공조』를 부르짖으며 갖은 발악을 다하고 있다.

현실은 온 겨레가 한결같이 바라는 북남관계의 진정한 개선은 민족의 통일열망은 안중에도 없이 동족대결의 불순한 목적만 추구하며 외세의 사냥개가 되어 돌아치는 역적패당을 통채로 들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허영준



외세 『공조』가 초래 할 것은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끝장내는 것은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한강 토에서 단일민족으로 화목하게 살아온 우리 겨레가 어찌하여 70년이 넘도록 갈라져있는가.

외세는 우리 민족을 분열시킨 장본인이다. 또 외세는 조선의 통일을 달가워하지 않으며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어 강대해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이것은 민족분열의 오랜 혁사가 보여주는 뼈저린 교훈이다.

반통일적인 외세에게 의존하여서는 언제 가도 우리 민족의 운명문제, 통일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외세에게는 조선의 분열을 통해 어부지리를 얻고 북남사이의 대결을 격화시켜 저들의 패권적 약육을 실현하려는 흥심만이 있을뿐이다.

조국통일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것이 아니며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이룩해야 할 자주적위업이다.

북남관계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이다.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북남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은 통일문제 해결에서 항구적으로 들어쥐고나가야 할 기본원칙이며 생명선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은 지금껏 퍼를 나눈 동족과는 등을 돌려대고 침략적인 외세와는 공화국에 대한 압박과 봉피를 노린다

터져라 고아했다.

세계 여러곳을 싸다니며 그 무슨 『인권의 보편적 가치』니, 『국제 사회의 우려』니, 『협력』이니 하고 쉘새없이 외워대며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의 앞장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도 다른 남조선보수당이다.

어디 이뿐인가. 『통일은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느니, 『주변나라와 세계도 동의』 해주어야 한다느니 하는 열빠진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통일문제를 놓고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비굴한 청탁돌음을 벌려 대고 있는 것도 바로 남조선보수당국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의 『통일외교』 놀음은 한미디로 『저들 주도의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인정과 지지를 얻어보려는 열빠진 기도의 산물로서 조국통일위업의 자주적성격을 부정하고 동족대결을 고취하는 반공화국대결 『공조』 외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여기저기 들고다니며 외세에 구걸하는 것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는 매국배족행위이다. 남조선보수당은 감히 그 누구를 『봉피』, 『변화』 시켜보겠다고 가소롭게 날뛰기 전에 총체적파산에 직면하여 엉망진창이 된 제 집안꼴이나 수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이 겨레의 운명을 외세의 통락물로 내맡기고 동족압살을 노린 추악한 친미사대와 외세구종, 『국제공조』 책동에 계속 매여달린다면 가장 수치스러운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남조선인터넷신문 『사람일보』에 의하면 평화통일 국제토론회에 참가한 해외인사들이 서울의 미국대사관앞에서 평화협정체결과 미군철수, 6.15공동선언리행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평화통일 국제토론회 조직위원장은 서울에서 진행된 토론회를 통해 분열의 원인이 미국에 있고 미국이 저들의 필요에 따라 남과 북을 갈라놓았으며 조선반도에서 70여년간이나 분열과 적대관계, 전쟁위기가 지속되는 이유도 역시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 까닭이었다고 말하였다.

조선반도에서 분열을 끝장내고 전쟁위기가 아닌 평화를 가져오자면 그 근본원인인 미국이 평화협정체결에 나서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그는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리행하는 것만이 평화통일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련대 공동대

강조하였다.

『전쟁반대와 인종차별반대를 위한 즉각행동련합』 대변인은 조선반도평화협정체결을 위해 미국에서도 거리시위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이 땅의 민중을 피롭히는 미군이 지금 당장 워싱턴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하였다.

프랑스의 한 혁사학자는 남조선강점 미군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고 있다고하면서 미국이 다른 나라를 힘으로 짓누르고 억압하며 착취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반도에서 진정한 비핵화를 실현하자면 북이 아니라 미국이 먼저 비핵화를 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북이 자기의 자원과 핵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리행하는 것만이 평화통일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련대 공동대

표가 『북미평화협정체결하고 6.15공동선언 리행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냥독하였다.

성명은 평화통일 국제토론회 참가자들이 그동안 6.15공동선언발표 16돐기념 민족통일대회, 량심수석방을 요구하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목요집회 등의 투쟁에 참여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바라는 마음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하는 사변을 이루어냈다. 막혔던 하늘길, 땅길, 배길이 열리고 각계총의 래왕과 협력으로 6.15시

집회에서 평화통일 국제토론회 조직위원장은 서울에서 진행된 토론회를 통해 분열의 원인이 미국에 있고 미국이 저들의 필요에 따라 남과 북을 갈라놓았으며 조선반도에서 70여년간이나 분열과 적대관계, 전쟁위기가 지속되는 이유도 역시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

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군철수가 조선반도평화와 통일의 필수적인 전제라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성명은 조선의 통일은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자체 통일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리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남조선당국의 《북핵》 공포증을 발가본다

벽에 부딪친 소경은 세상이 끌났다고 생각한다는 말이 있다. 지금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을 집요하게 결고들며 천방지축 날뛰는 남조선당국의 단말적인 발악이 바로 그러하다.

그 앞장에는 공화국의 핵에 대하여 병적인 거부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집권자가 있다. 《북핵포기》를 촉적인 목표로 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핵포기》를 떠들며 《국제공조》에 필사적으로 매달려온 그는 얼마전 아프리카나라들에 대한 행각시에 《지금 호지부지하게 되면 북이 핵능력을 고도화시켜 더이상 손쓸수 없는 상황이 될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숨 넘어가는 소리를 질러댔다.

치마뒤 꼬리에 물어다니느라 여념이 없는 국방부와 통일부, 외교부의 어중이떠중이들도 천사만사를 다 제쳐놓고 공화국과 련계가 깊은 나라들만 골라 싸다니며 《북의 〈핵도발〉을 시급히 저지》시키기 위해 나서달라고 비굴하게 달라붙고 《제재야말로 북핵포기》를 위한 독한 약》이니, 《지금은 북핵포기에 집중해야 하며 대화할 때가 아니다》느니 하며 황당무게한 망발을 합창해대고 있다.

이야말로 지금까지는 체면치레로 들쓰고있던 면사포마저 완전히 벗어던지고 구린내 나는 알몸뚱이를 세상에 통채로 드러내놓은채 물불을 가림없이 날뛰는 정신병자무리를 방불케 한다.

그들의 공통적인 명명은 한마디로 《북핵》공포증이다.

《북핵》공포증, 이것은 북남관계를 철저히 대결의 론리에 기초하여 대해온 남조선의 친미보수파당이 오늘에 와서는 부정할수 없게 된 공화국의 핵보유를 두고 저들의 전략적렬세를 빼아프게 자인하면서 느끼는 심리적전률이고 극도의 폐배의식이다.

당장 무슨 변이 나는것처럼 기겁하여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살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세계가 재재를 강화》해달라고 목 아프게 고아대는 대결추태의 밀바탕에는 북의 핵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심리가 놓여있다. 공화국의 핵능력 강화가 저들에게는 곧 사형선고처럼 간주되고 좀 더 시간을 끌면 저들이 기도하던 모든것이 완전히 날아나고 만다는 위구심과 허망감이 남조선당국자들에게는 극도에 달해있다.

그 당황망조상이 남조선집권자가 벌어놓은 《더 이상 흐름

지부지하면 모든것이 끌장난다.》는 말 한마디에 그대로 비껴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핵이 그렇게도 두려운가. 두렵다면 응당 문제로 삼았어야 할 핵은 따로 있다.

사실 누구이든 핵에 대한 옳바른 판단과 기준이 있다면 무엇보다 두려워하고 가중스러움을 느껴야 할것은 조선민족의 운명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온 미국의 침략적인 핵무기라고 할수 있다.

인류를 상대로 몸서리치는 첫 재앙을 들씌운것도 미국의 핵이고 우리 민족과 인류에게 항시적으로 위협을 가하고있는 것도 미국의 수만개에 달하는 핵무기이다. 이미 오래전에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서 미국에 의한 핵참화를 입었고 조선전쟁시에는 우리 겨레가 미국의 무시무시한 핵공갈에 사랑하는 부모처자와 형제자매들이 생때같이 갈라지는 처절한 비극을 겪어야 했다.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십년동안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항시적으로 떠있은 것은 미국의 잔인무도한 핵이였고 그로 하여 우리 겨레는 어느 한순간도 핵전쟁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핵무기없던 세계에 첫 핵무기를 출현시키고 그것을 타국에 대한 위협과 지배의 수단으로 삼아 다른 나라들을 핵무장으로 추동한 장본인이 바로 미국이며 그 미국의 핵부터 없애는것이 핵무기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첫 공정이고 핵무기전파방지의 기본열쇠라는것은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다면 위협을 느껴도 미국의 핵위협부터 느끼고 공포를 가져도 미국의 핵무기에 공포를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미국의 침략적핵은 《보호》를 위한 《우산》이라고 얼토당토않게 강변해나서고 동족의 정당한 핵보유에 대하여서는 저들의 안전과 세계평화를 해친다고 떠드는것이 아말로 파렴치한 혁사외곡, 현실기민이며 극도의 친미굴종, 동족대결의식이 낳은 병적인 사고이다.

핵도 누구의 손에 쥐여진 어면 핵인가에 따라 민족과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반대로 귀결된다.

미국의 침략적핵에 맞서 탄생한 공화국의 핵은 그 출발부터가 명실공히 정의의 핵, 자주의 핵, 자위의 핵이다.

공화국은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만들었고 그 조준경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대조선적대시 압살에 환장이 되어있는 침략자 미국에게 향해 있다.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항시적으로 핵위협을 가해온 미국에 맞서는 공화국의 선택은 핵이외에 다른 것이 될수 없다.

어제나 오늘이나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폐권을 노리는 치렬한 쟁탈전의 중심에 있는 공화국이 자위적힘이 없으면 대국들의 희생물로 전락될수밖에 없게 되어있다.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강대국들의 지배와 간섭의 마수에서 조선민족을 영원히 해방하고 이 땅에서 전쟁을 막아 우리 겨레의 안전과 행성의 평화를 지키는 보검이 바로 우리가 틀어쥔 정의의 억센 핵이다. 진정 동방에 오늘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핵대국이 출현한것은 우리 민족의 안전과 통일, 후손만대의 번영은 물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견지에서도 일대 사변이고 경사로 된다.

《북핵》을 숨어 하면 안된다. 북핵이 있기때문에 《한국》이 다른 나라들의 핵공격에서 벗어날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님 모신 북은 대단합니다.》, 《왜 북이 핵을 포기해야 하나? 말도 안되는 소리다. 북이 하자는대로 해야 〈한〉 반도와 국제사회에 평화가 찾아온다.》, 《북의 핵은 통일이 되면 우리의것이 된다. 그러면 일본과 같은 나라들이 옛날처럼 감히 우리를 침략하지 못하게 된다.》…

남조선의 각계에서 울리는 이 진정님친 목소리들을 듣는가. 여기에는 이 땅의 평화와 통일, 번영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 공화국의 핵보유업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폐부로 절감하고있는 겨레의 환호와 지지가 그대로 비껴있다.

그런데도 입만 째지면 《북핵위협》을 떠드는 남조선당국자들은 과연 어디에 태줄을 묻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고 묻지 않을수 없다.

공화국은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핵이 남녀인민들을 겨냥한것이 아니라는것을 명백히 선언하였다. 세계가 주목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바라지 않으며 나라의 통일번영의 길을 평화적으로 열어나

갈데 대한 주체적통일로선을 다시금 천명하고 남조선당국이 동족대결의 흥심을 버리고 통일의 동반자가 되여 우리와 함께 손잡고나갈 용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였다. 이것은 핵을 가진 공화국의 진정이고 절대불변의 의지이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이 공화국이 내민 선의적인 순길에 대하여서는 무력대고 전면부정하면서 부질없는 《북핵포기》소동에만 미쳐날뛰는것은 그들이 바라는것이 결코 대화와 관계개선, 평화와 통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이 《북핵위협》을 그토록 광고하며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공화국의 핵을 없애보려고 사생결단하는 진짜리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공화국의 핵보유와 핵강국지위의 강화로 저들이 오래동안 고대하여온 《제도통일》, 《흡수통일》망상이 산산조각나게 된다는데 있다.

력대로 남조선 《정권》의 《대북정책》이란 본질에 있어서 미국을 등에 업고 공화국에 대한 대결과 압박, 제재와 봉쇄로 종당에는 북을 무너뜨리고 저들의 《제도통일》을 이루는것이라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정권》의 문제는 여러차례 바뀌어도 《북진통일》에서 《승공통일》,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 《흡수통일》로 이어져온 흥심은 수십년동안 변함이 없었다.

특히 남조선보수파당은 동유럽사회주의진영의 붕괴와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으로 일시적인 시련과 난관을 겪고있는 기회를 악용하여 공화국의 《위기》와 《종말》을 요란하게 떠들면서 《체제통일》기도를 실현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광하였다. 리명박여도가 《북급변사태》니, 《통일은 한밤중에 도둑처럼 온다.》느니 하면서 북남관계를 결단내고 극단적인 대결일면도정책에 매여달린것도, 박근혜가 《통일준비위원회》를 조직하며 《통일대박》을 채쳐댄 것도 해쳐보면 근저에는 이런 극악무도한 악심이 놓여 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현실은 어찌되었는가. 《핵 대 딸라가 오늘 남북대결의 실체이며 핵을 가진 북을 남쪽으로서는 영원히 이길 수 없을것》이라는 한 남조선언론인의 평가가 참으로 적중하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지금껏 《경제적우위에 기초한 통일》이란 5월 광주인민봉기 당시 봉기자들과 부활시키려는 박근혜 광기 광주시민들을 야수적으로 의 일단에 불파하다. 학살한 제11공수특전여단 집권해 서부터 지금까지 박근혜는 생존권과 민주권을 동원시키려 한것이다. 지난 5월에는 광주의 기주의를 요구하는 민심에 《님을 위한 역행하여 《한강변 기적》

한 통일》이니, 《북체제의 변화》니 하고 온갖 비렬한짓을 다하여왔는데 오늘에 와서 그 상대가 핵보검을 굳건히 틀어쥐었으니 속통증은 그 등신들의 눈에 비껴든 북의 핵이야말로 열미나 두렵고 엄청난 위협으로 보이겠는가. 생각만 해도 등그림에서 비자땀이 흐르고 당장 명줄이 썩어들어가는것 같은 환각에 미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더우기 그 어느 《정권》보다도 《북핵포기》에만 광적으로 집착해온 박근혜파당이고 보면 오늘의 처지가 참으로 가공하게 되었다.

박근혜가 집권해온 지난 3년 수개월간 공화국은 민족과 통일을 위해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자는 통 큰 호소도 하고 대화와 접촉의 기회도 여러 방면에서 수없이 마련하였다.

아량과 성의도 발휘할수 있는것 최대로 발휘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그 모든 기회를 날려보내고 대화마당에 나와서 조차 부당한 조건과 구설을 내대며 단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의 관심은 북남관계개선이 아니라 동족에 대한 《압박》과 《북핵포기》에 있었을뿐이다. 종당에는 《북의 핵능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는 구실로 북남협력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개성공업지구마저 가차없이 날려보낸 대결방신자로 박근혜와 그 폐당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결망동이 오히려 제손으로 제눈은 물론 제 염통까지 찌르는 부메랑이 될줄 미련한 박근혜 《정권》이 어찌 알수 있었겠는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가증되는 침략위협에 대처하여 자위적핵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수소탄을 포함하여 소형화, 정밀화, 다종화된 핵탄을 보유하였으며 강위력한 전략타격수단들을 갖춘 오늘에 와서 우리 공화국의 정치군사적지위는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었으며 이것은 세계정치지형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제힘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미국을 하내비처럼 믿고 날려보낸 괴뢰파당은 조미대결의 승패가 시간이 갈수록 명백해지고 있는 오늘에 와서 숨통을 조이는것 같은 압박감을 받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미국에만 기대여서는 안될것 같은 급박감에 그만 앞뒤도 가지 못하고 여기저기에 찾아가 백성의 피땀을 짜내여 꽁꽁 뭉치돈까지 찔러가며 《공조》니 《제재참여》니 하고 국성

스페 애원하고 있지만 그에 진심으로 호응해나설 상대가 과연 누구이겠는가.

몸 주고 뺨 맞는다는 옛 속담 그른데 없는 범이다. 선량하고 정의로운 동족을 결에 두고 그를 해쳐보겠다고 별별 비련질을 다하다가 시시각각 가장 가공하고 비참한 처지에 빠져들고 있는것이 오늘의 남조선보수파당이다.

그들이 이미 풍자박산난 《체제통일》의 흥심을 버리지 못하고 핵, 핵 하며 제재와 대결소동에 계속 미쳐날뛰지만 결과는 그들 스스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참혹하게 번져질수 있다. 남조선호전세력이 상전의 북침전쟁과 제재소동에 같이 춤을 추면서 미국을 겨우 공화국의 핵준경안에 어리석게도 자발로 제바라 들어온다면 남조선당국의 핵공포가 진짜 현실로 될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공화국의 핵은 스스로 선택하고 려자의 온갖 시련을 이겨내며 빛내여온 인민의 제도와 안녕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의 핵이지만 그것을 해쳐려고 끝까지 퍼를 물고 달려드는 적대세력들에게는 어떤 자비와 판용도 배풀지 않을것이다.

남조선집권자가 얼마전에도 또다시 그 누구의 《자멸》을 가소롭게 쳐쳤지만 진짜 자멸할것은 지금 이시각에도 행성의 엄청난 지각변동을 얹지 못하고 미국에만 매달려 동족압살의 더러운 시궁창에서 헤매는 박근혜국 《정권》이다.

정의도, 힘과 시간도 공화국의 편에 있다. 공화국은 지금 최후승리의 환희로운 그날을 지척에서 바라보며 신심드높이, 보무당당히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공화국이 상대의 민족반역파 배신의 정체를 잘 알면서도 다시한번 선의와 아량으로 내민 손을 잡고 통일의 길로 함께 가겠는가 아니면 동족대결과 전쟁소동에 계속 매달리다 외세와 함께 비참한 파멸을 맞겠는가.

남조선당국은 운명의 갈림길에서 더 늦기 전에 선택을 바라야 한다.

이 시각 남조선보수파당이 빠아프게 스며드는 《북핵》공포증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시대착오적이고 자멸적인 동족대결책동을 중지하고 민족적화해협력으로 방향전환하는것밖에 없음을 뚜렷히 명심하고 더이상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허성철

올해 2월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오마이뉴스》는 박근혜의 집권 3년에 옮은 지적이다. 대해 한마디로 《박정희파라하기》라고 평하였다. 그에 의하면 박근혜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애비 박정희때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따라 한 것 이고 《개발정책》의 본보기 역시 《세마을운동》이라고 하였다.

지난해 말 일본파의 일본군성노예피해자문제에 대한 합의도 1965년 박정희 《정권》의 남조선일본 《협정》과 류사하고 그 외에 언론장악, 재벌특혜, 《세월》호 참사, 혁사교파서 《국정화》 등을 통해 본 모든것이 박정희

《정부》와 공통점을 이룬다고 비난하였다. 《유신》 독재를 해산, 《국정교파서체》 도입, 《태로방지법》 채택, 《개성 공업지구 폐쇄》 등 신통하고 《유신》 독재자의 독재통치를 련상시키는 반민민적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 남조선집권자는 《박정희 따라하기》 정도가 아니라 《유신》 독재를 전면부활시키기 위해 떨어져 있다. 무슨 《6.25전쟁기념 광주광역시 시가행진》 놀음이라는것을 벌리려고 하였다. 문제는 그 시가행진 놀

이것은 《유신》 독재를 해산, 《국정교파서체》 도입, 《태로방지법》 채택, 《개성 공업지구 폐쇄》 등 신통하고 《유신》 독재자의 독재통치를 련상시키는 반민민적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행진곡》 제창을 가로막더니 이번에는 그 광주에 민주화운동을 총칼로 진압한 그 살인부대를, 그것도 총을 쥐여주어 들이밀려고 한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주화는 꿈도 꾸지 말여 말을 만들으면 또 1980년대처럼 무자비하게 진압하겠다는 말없는 경고이고 위협인것이다.

의 계승》이니, 《제2의 새마을운동 대제 협약》이니 하며 애비의 공적을 치켜세우는데 만 풀물하고 해외에 돌아치면서 《1970년대 한강의 기적》이니, 《산업화의 성공》이니, 《새마을운동》이니 하며 《유신》 독재자를 내세우려고 발악하고 있다.

현실은 박근혜에 의해 남조선에서 정치를 비롯한 사회의 모든것이 지난 세기 60년대로 거꾸로 가고 있다는것을 말해 주고 있다. 본사기자 김정혁

남조선 《국민일보》에 하수인으로 만들어 지방에 15일 남조선의 경자치단체를 통채로 없애는것이 《정부》의 목적이라고 깔렸다.

《정부》의 의도대로 지방자치단체를 전부 당국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박정희 시대로 되돌아가도 좋은가고 글은 반문하였다. 글은 이 땅에서 민주화를 행위하기 위한 싸움은 피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정부》의 《유신》 독재부활책동에 맞서 끝까지 싸워 민주화를 행위한 것이라고 글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미국은 전쟁방화의 주범

세월의 흐름은 망각을 동반한다고 한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강산이 변해도 우리 민족에게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있는것이 있다. 미국이 남조선 호전세력들을 부추겨 새 생활을 한껏 누리는 공화국의 평화적 주민들에게 전쟁의 재난을 들씌웠던 지금으로부터 66년 전인 1950년 6월 25일이 바로 그려하다.

이 땅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갖은 재난을 들씌운 미국의 죄악은 가장 야만적이고 반인륜적인 특대형 전범죄이다.

신천의 배들어린이묘를 비롯한 수산리와 거제도, 제주도와 대전과 로근리의 참변과 같이 미국이 감행한 조선전쟁은 무차별 폭격, 대량학살은 말할 것도 없고 인류전쟁사에 들어보기 힘든 『몰살』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살륙과 범죄의 극치를 이루었다. 하지만 암마의 제국 미국은 조선인민을 잘못 알고 덤벼들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공화국의 위력 앞에 세계 『최강』의 신화가 조선의 이름 없는 산야에 통채로 구겨박하고 건국이래 처음으로 서산락일의 운명에 빠져 무릎꿇고 항복서까지 바치지 않으면 안된 미국이다.

조선전쟁은 『미국식 평화와 자유』의 위선적인 가면을 완전히 밟아버기는 반면에 아직은 세계가 알지 못했던 공화국의 불쾌의 위력을 낌김없이 보

여주는 계기로 되었다. 전쟁의 포화는 멀고 정전은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결코 평화가 아니었다.

정전협정이 조인된 그때로부터 반세기도 훨씬 지난 오늘까지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호전세력의 전쟁도발책동은 한시도 멈추어진적이 없었다.

미국은 수많은 침략무력과 핵무기를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해마다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 북침전쟁연습을 발광적으로 벌려놓아 정세를 최대로 긴장시키고 이 땅의 평화를 염중히 위협하여왔다.

최근에도 미군과 남조선호전파들은 서해열점수역도 부족하여 한강하구까지 북침도발의 첨예한 수역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으며 각종 핵전략 폭격기들과 핵잠수함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여 북침전쟁준비를 다그쳐대고 있다.

지나온 조미대결의 역사과정에 폐배에 폐배를 거듭하면서도 힘의 만능론에 환장하여 세계제폐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미친듯이 발광하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호전세력들이야말로 제죽을줄 모르고 날뛰는 가소로운 전쟁부나비들이 아닐수 없다.

수십년에 걸치는 미국의 핵위협은 공화국을 무시할수 없는 동방의 핵강국으로 만드는 역효과만 가져왔으며 그로 하여 오

늘날 공화국의 군사적위력은 1950년대에는 비활바없이 막강하게 되었다.

반세기 훨씬 이전에 미국은 창건된지 불과 5년밖에 안되는 청소한 공화국에 의해 처참한 폐배를 당하였다.

오늘에 와서 미국이 맞선 상대는 수소탄과 각종 핵운반수단까지 가진 동방의 핵대국이다. 며칠 전에는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지상대지상증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0』 시험발사에서 성공하는 사변을 이루어냄으로써 태평양작전지대안의 미제침략군을 전면적이고 현실적으로 공격할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날 공화국의 위력한 핵은 정치군사강국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해주고 있으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의 믿음직한 담보로 되고 있다.

미국은 뻔뻔스럽게 그 누구의 핵을 문제시하며 부질없는 소동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를 발생시킨 책임을 인정하고 범죄적인 대조선적대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전쟁의 화근인 미군을 한시바삐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한다.

현시기 세계 최대 열점지역인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주되는 장본인이며 전쟁광신자인 남조선강점 미군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호전세력들에게 저주와

규탄을 보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내에서 까지 『조미대화와 남조선주둔 미군철수가 급선무』라는 말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나라의 분령을 지속시키고 평화를 위협하는 장애물로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며 남조선에 미군이 계속 틀고 앉아있는 한 조선반도의 첨예한 긴장은 언제가도 해소될수 없다.

정의의 핵보검을 틀어쥔 공화국의 군사적위력 앞에 그 어떤 혜위협이 더는 통할수 없게 된 오늘의 현실적조건에서 미국은 조선전쟁의 쓰디쓴 참패에서 교훈을 새기고 대조선정책 전환의 길에 들어서는것이 좋을 것이다.

이것을 외면하고 계속 적대적인 대조선제재와 핵전쟁소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공화국이 이미 친명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는 영영 사라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황진욱

해마다 6월이 오면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기쁨과 슬픔, 환희와 아픔, 상봉과 리별, 불행과 회망의 상반되는 두 날을 맞이하게 된다.

6월 25일, 1950년 조선전쟁이 일어난 날이다.

이 날로 하여 이 땅의 수백만 남녀로소가 숨졌고 수천수만 혈육들이 생리별을 강요당하였으며 수십년세월 아

품과 고통의 추억이 겨레의 가슴에 한으로 새겨졌다.

다름 아닌 미국이 일으킨 조선전쟁이고 미국의 대조선침략야망이 우리 민족에게 들씌운 불행과 고통이다.

우리 민족을 분열시킨 것만도 참을수 없는 원한인데 미국은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려고 전조선반도에 전쟁의 불소나기를 쏟

시

6월의 서리발

김윤식

라겼던가
오늘도 저 남녘에서 쉼없이 터져 나오는
북침전쟁연습의 총포성
6.25는 흘러간 추억이 아니다
오늘도 우리는 6.25전야에 산다

어느 해 어느 달인들
화약내 뿐어대는 전쟁연습 그친적 없어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려는
미제와 매국역적의 무리
우리 어찌 용서할수 있으랴

그놈들이 이 땅에 도사리고 있는 한 진정한 평화와 안녕은 없다
민족의 숙원 통일이란 있을수 없다
겨레여, 우리 하나로 뭉쳐 철천지 원쑤 미제를 이 땅에서 몰아내자

오, 미제를 영영 물아낸 그날에야 삼천리엔 평화가 깃들리라
민족의 생존을 위해 통일을 위해 떨쳐나선 8천만의 가슴에 서리발 치는 중요
6월의 종오 그 서리발은 농지 않는다

그날의 포성이 파연 세월 속에 사

아부었다.

분령과 전쟁, 우리 민족은 외세에 의하여 수십년 동안 강요된 그 치욕을 우리 민족의 힘으로 씻어내고자 혁신의 6.15를 탄생시켰다.

2000년 6월 15일, 바로 그날에 민족분령사상

길, 바다길이 열리였으며 불신과 적대의 위구를 가지고 협력과 교류로 통일의 열매들이 주렁진 우리 민족끼리의 시대가 열리였다.

나무는 가만히 서있으려 해도 바람이 그냥 두지 않는다고 했다.

최악의 사태에 처한 북남관계를 보면 서 혁신의 갈피에 새겨진 6월이 우리 겨례의 짐장을 두드리는 웨침이 있다.

—미국, 네가 없어야 조선반도가 편안해지고 우리 민족이 행복해진다.—

—6.25가 반복되기를 바라지 않거든 귀중한 6.15를 살려야 한다.—

이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6.25의 절규이고 잊어버릴수 없는 6.15의 메아리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6월의 웨침

6.15가 앙아온 통일의 봄에 피여난 꽃송이들, 열매들이 침략의 핵구름에 의해, 동족대결의 칼바람에 의해 스러지고 짓밟히고 있다.

분령의 원한이 서리서리 감긴 삼천리 강토에 화해와 단합의 봄을 안아오고 열어든 가슴마다를 민족의 통일열기로 녹여준 6.15가 있어 미국이 박아놓은 분령의 장벽에 파

령구를 내고 하늘길, 땅

길수 있다고 보는것과 같은 천치바보들의 어리석은 망상이다.

지금 공화국의 경제는 상승일로에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갖은 제재에도 경제는 날로 활기를 띠고 발전하고 있으며 인민들의 생활은 나날이 윤락해지고 있다. 어디가나 차넘치는것이 제힘으로 만든 질 좋은 국내산제품들이고

말해 무엇하랴. 지금 남조선 각계층속에서도 『6개월 제재로 북이 무릎을 꿇으리라는 박근혜 『정부』의 정세전망은 정책이 아닌 일방적 희망사항에 가깝다.』는 비난과 조소가 울려나오고 있다.

2016년은 조선이 굽어드는 해가 아니라 자기 혁신에서 가장 강해지고 홍해지며 행복의 웃음소리가 차넘치게 될 해, 말그대로 조선의 해로 될것이다. 2016년의 달과 달은 세상이 똑똑히 보듯이 조선이 승리의 통장훈을 련이어 부르는 감동과 사변의 달파 달들로 흘러가고 있다. 그것은 9월에도 마찬가지로 12월에도 마찬 가지일것이다. 이 사변적인 2016년에 조선은 적대세력과의 세기적인 대결에서 혁신적인 승리를 이루하게 될것이다.

비단 올해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공화국은 자위의 핵강국의 위용을 떨치며 승리의 혁신을 새겨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8~9월께면 북이 국제 사회의 제재를 더는 견디지 못하고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다.』, 따라서 『9월까지는 북과 그 어면 교류협력사업과 대화도 하지 않는다는것이 방침이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당국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그 개인의 말이 아니라 남조선당국의 입장으로 대변하는 말이라고 보아 할것이다. 남조선당국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대북제재』와 압박에 그토록 모지를 읊쓰는가 하는 그들내면 세계가 고스란히 들여다보인다.

남조선당국은 9월쯤이면 공화국이 제재를 견디지 못하고 태도를 바꾸리라 생각하고 있다. 그만큼 저들이 미국과 함께 주동이 되여 벌리는 『대북제재암박』이 보통 나라같으면 견디기 어려운 『고강도제재』이고 압박이라는 소리이다. 공화국이 어떤 상대인가 하는데 대해 아직도 똑똑히 모르는 어리석은 망발이 아닐수 없다.

『고강도제재』를 실시해서 6개월쯤이면 굴복한다?

너무도 천만의 말씀이고 천진란한 꿈이라 해야 할것이다.

공화국이 제재를 받아 굴복할것 같으면 애당초 자위의 수소란시험과 인공지구위성발사를 하지도 않았을것이다. 설사 6개월이 아니라 제재가 6년,

붕괴된것을 기화로 『사회주의 종말』을 떠들며 공격의 총화살을 반미자주적인 우리 공화국에 돌리였다. 저들의 거수기, 추종국가들을 총동원하여 제재소동에 매달리고 대조선도위망을 형성하면서 암살의 쇠사슬을 조이였다. 그때 조선은 설상가상으로 하늘처럼 믿고 따르던 정도자

란듯이 진입하였다. 자기 혁신에서 최악의 역경도 이겨내고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온 공화국이, 오늘에 와서 수소탄과 각종 핵운반수단까지 갖춘 공화국이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이 갖은 제재수단을 동원하며 『핵을 포기』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에 응할수 있겠는가. 너무도 말도 안되

압박을 받을수록 더욱 강해지는 나라이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갖은 위협소동에 초강경 군사적대응조치로 맞서고 비렬한 제재에 자강력의 가치를 들고 맞받아나가며 이 땅우에 련일 승리와 전변의 새 혁신을 수놓아가고 있는 공화국이다. 제재가 길어질수록 그에 비례하여 공화국의 억

질수 있다고 보는것과 같은 천치바보들의 어리석은 망상이다. 지금 공화국의 경제는 상승일로에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갖은 제재에도 경제는 날로 활기를 띠고 발전하고 있으며 인민들의 생활은 나날이 윤락해지고 있다. 어디가나 차넘치는것이 제힘으로 만든 질 좋은 국내산제품들이고

말해 무엇하랴. 지금 남조선 각계층속에서도 『6개월 제재로 북이 무릎을 꿇으리라는 박근혜 『정부』의 정세전망은 정책이 아닌 일방적 희망사항에 가깝다.』는 비난과 조소가 울려나오고 있다.

누가 견디는가, 시간이 보여줄 것이다

60년이나 지속된다고 해도 공화국은 지금의 혁보유태도를 추호도 바꾸지 않을것이다. 병진로선의 길을 걷고 있는 공화국에 있어서 제재는 새로운것이 아니다. 공화국이 창건되어 지금까지 받아온 제재이다. 미국이 자국의 법을 휘둘러 불법제재를 가한것도 이리 헤아릴수 없고 유엔을 내세워 벌려온 별의별 제재소동에도 공화국은 그 뿐없이 견디여왔다. 지난 세기 90년대에 미국은 동유럽사회주의가

를 잊고 수년째 자연재해도 당해 고난의 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에 미국은 비롯한 적대세력은 폐재를 올리면서 『3.3.3봉파』 설까지 내돌렸었다. 북조선이 빠르면 3일, 늦어서 3년이면 『봉파』 된다는 설이였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던가. 봉파된것은 조선이 아니라 『봉파』 설 그 자체였다. 그리고 공화국은 제재에 굴복하는 나라가 아니라 두드리면 더욱 단단해지는 강철과 같이 제재와

진실이 알려지는 것을 왜 두려워하는가

최근 남조선 보수당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의 대면을 위해 유인립치된 공화국 주민들을 법정에 출석시킬 때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요구를 거부하고 저들의 법정대리인을 내세운으로써 재판을 무산시키였다. 하여 《민변》이 피해자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진행하려던 랍치된 주민들의 신상과 그 무슨 《자진탈북》 의사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 확인을 가로막은 정보원과 통일부는 저마다 나서서 《인권침해》니, 《적법한 보호》니 뛰어놓는가 하면 《새누리당》 패거리들까

지 합세하여 《〈민변〉이 왜 〈탈북자〉를 법정으로 끌어내려는 건지 저의 가의 심스럽다》, 《〈민변〉의 주장은 북에 리용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저들의 죄행을 감추어보려고 무진애를 쓰고 있다.

이것은 보수당이 저들의 반인륜적 죄악이 유인립치된 공화국 주민들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날까봐 국도로 당황망조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자체가 저들의 유인립치만행을 인정한 것이나 같은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전에는 남조선으로 끌고 가자마자 공화국 주민들의 신상을 공개하였던 남조선당국이 피해자 가족들의 위임을 받은 《민변》의 요구를 거

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보수당이 유인립치한 공화국 주민들을 통해 진실이 알려지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하는 것은 그들이 대한 정보원의 이른바 《보호기간》을 6개월 이상 늘리고 그 이후에도 《탈북자》들이 가게 되는 《북리탈주민 정착 지원사무소》에 보내지 않고 정보원이 관할하는 《북리탈주민 보호센터》에 계속 수용하겠다고 떠들고 있는 사실만 놓고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제반 사실들은 남조선 당국이 떠드는 《자진탈북》이란 새빨간 거짓말이며 보수당이 암말로 부모와 자식을 생리별하게 만들고 자식들의 얼굴에 먹칠까지 하려는 희생의 패륜아, 천인공노할 범죄집단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집권자는 며칠 전 《국무회의》라는데서 또 다시 《북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랍치, 혜로를 기도하고 있다는 첨보가 계속 입수되고 있다》, 《국제 대로 조직과 직간접적으로 련계된 북의 혜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 같지 않은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것은 동족대결에 환장하다 못해 백주에 공화국 주민들에 대한 유인립치

본사기자 김철민

요즘 박근혜에게 새로운 오명이 또 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저성파자》, 그 무슨 《성파년봉제》라는 것을 도입하려는 박근혜에게 집권기간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는 그녀로부터 《대통령》 직에서 해고해야 한다는 남조선인민들의 분노가 담긴 오명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녀성에 대한 부름치고는 들기에도 거북한 수많은 별명을 달고 다니는 박근혜에게 날이 갈수록 오명, 별명이 늘어나고 있으니 참 가련한 신세입니다.

별명은 자기의 본이를 외에 따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본명이 자신에 대한 부모의 축복이라면 별명은 모습, 성격, 행동, 말씨 등 개성적 특징이 반영되고 사회관계에서 받게 되는 것으로 하여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별명을 가질 수 있지만 녀성으로서, 그것도 가장 추하고 악한 오명, 별명만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녀자는 아마 세상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천연스레 뻔뻔스런 얼굴을 쳐들고 다니는 그런 녀자는 아마 요녀이거나 마녀일 겁니다.

인류의 문명이 침단세계를 밟아가는 오늘에 전설이나 우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녀자가 바로 남조선 집권자와 비슷합니다.

이건 억지가 아니라 남조선인민들이 박근혜에게 달아준 별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간 박근혜의 부실한 행실은 그만두고 남조선 인민들이 어떤 별명들을

선사했는지나 몇 가지 보기로 합시다.

《얼음공주》, 《유아독존》, 《고집불통》, 《랭협동물》, 《치마두른 현대판 변학도》 등은 오만과 독선, 독단밖에 모르는 박근혜를 가르키는 별명입니다.

《진도개 물어뜯는 정신》으로 일하라고 아래 것들을 강박하고 제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그가 누구이든 속치마 걸어 입듯 바꾸어 치우며 《원쑤》, 《단두대》, 《배

본사기자 김필

마녀의 증말

신자》, 《원흉》과 같이 살기 들큰 말만 내뱉는 박근혜에게 딱 어울리는 별명들입니다.

오죽하면 박근혜를 적극 밀어주던 《유신》 진당들로 무어진 《7인회》 것들도 《무서운 녀자다》, 《독재기질에 기가 질린다》며 외면하고 등을 돌리는 정도이겠습니까.

《수첩공주》, 《메모공주》, 《말이 안통하네뜨》, 《칠푸이》(칠삭동이) 이는 박근혜의 무지, 무능을 비난하는 별명들입니다.

번지르르한 연설문들은 아래 것들이 써준대, 그것마저도 제대로 읽지 못해 《어버버》 한대, 기자들이 질문하면 혀가 딱 정지된다니 지능지수가 《2MB》로 소문난 이전 집권자와 비슷합니다.

그런 머리로 정치를 한다니 뭐가 되겠습니까.

《세월》 호참사, 메르스 사태, 화재, 건물 붕괴, 충돌사고 등 재난은 그칠 새 없고 《실업대란》, 《비정규직대란》, 《전월세

절규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분노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화 속의 요녀, 마녀는 마술의 힘을 빌어 변신술을 잘 씁니다.

박근혜도 그런 우화들을 통달했는지 변신하는데서는 명수입니다.

남조선인민들 앞에 나서면 사슴의 웃음을 짓고 청와대에 기여하면 서슬이 푸르덩덩 해지는 독사가 되고 《세월》 호참사 때 본것처럼 제가 빚어낸 재난으로 유타하는 인민들 앞에서는 악어의 눈물을 짜내지만 해외에만 나가면 칠면조처럼 하루에도 옷을 몇 벌씩 갈아입고 웃음만 흘리는 구미여우가 됩니다.

요녀, 마녀 박근혜는 별의별 추물로 변신하여 북남관계를 아예 망가뜨렸습니다.

미국 앞에만 서면 꼬리를 흔드는 삽살개, 《대북제재》, 《압박》, 《북핵 위협》이라는 미국의 소리를 곧잘 외우는 앙무새가 되고 동족에게는 암승냥이로

변신하여 이발을 드리내고 《도발》, 《웅정》 등 어물전 맵도는 병든 까마귀 고함만 칩니다.

미국에 추종하여 북남관계를 파산에 몰아넣은 박근혜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비난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북의 돈줄》을 차단하고 북과 남이 애써 마련한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였으니 《뼈대가 없는 회충》이라고, 조선반도의 핵 문제를 무엇이고 그 해결방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역사의 발전은 여성들의 자유, 진보와 정비례 한다》는 명언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근혜는 남조선을 《유신》의 암흑시대로 돌려세우는 회세의 마녀, 북남관계를 파괴하고 전쟁으로 몰아가는 광녀, 우리 겨레와 인류의 지향과는 반대로만 하는 악녀로 역사의 발전을 가로막는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돌려세우려는 우리 민족과 인류의 암적 존재입니다.

전설이나 우화 속의 요녀나 마녀는 항상 사랑과 정의의 힘에 의해 망하고 맙니다.

사랑과 평화, 정의와 진실을 바라는 것은 인류의 넘원이고 지향이기 때문입니다.

《치마두른 늙은 요귀》, 《태여나지 말았어야 할 요물》인 박근혜가 아무리 요술을 쓰고 마술을 부리며 력사를 거꾸로 돌리려 하여도 우리 민족의 사랑의 힘, 정의의 힘에 의해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박근혜의 노는 꿀은 꼭 카멜레온이고 하는 행동은 모두 청개구리입니다.

《마귀년》, 《병신년》, 《랭협한》, 《악녀》, 《마녀》 등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별명들에다 《악어》, 《삽살개》, 《독사》, 《까마귀》 지어 《회충》 등 녀성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동물로 표현되는 박근혜입니다.

무릇 녀성은 생명을 창조하고 안아키우며 인류의 생활을 가꾸고 꽂펴우는 존재로 일컬어 왔습니다.

계파싸움으로

망해간다

남조선에서 집권여당이라고 하는 《새누리당》이 계파싸움으로 몸살을 되게 앓고 있다.

지난 4월 13일에 있은 《국회》 의원 선거에서 대 참패를 당한 《새누리당》이 계파간의 갈등을 없애고 당의 화합과 협상을 한다고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내왔지만 명색뿐이고 친박계와 비박계 사이의 싸움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16일 비상대책 위원회가 무소속 당선자들의 《일팔복당》 결정을 내린 것을 계기로 친박계와 비박계는 더는 화합할 수 없는 죄와 고양이 판계가 되었다.

서청원을 비롯한 《새누리당》의 중진 의원들이 《비대위 결정을 따라야 한다》며 겨우 사태 수습을 하였지만 그것도 일시적이였다.

《일팔복당》 결정에 불만을 표하며 당무를 거부했던 비상대책 위원장이 비박계인 사무총장에 대한 교체를 주장하며 당무에 복귀하였기 때문이다.

20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 위원회는 그야말로 친박과 비박 사이의 전

쟁마당으로 변해 다 망한 《새누리당》의 집안꼴을 잘 보여주었다.

《새누리당》의 친박계 의원들이 사무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정당하다고 응호하자 비박계 의원들은 《사무총장에 대한 사퇴립장 방침은 적절치 않다》며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또 당사자인 사무총장은 자기에 대한 사퇴 요구는 아무런 명분도 없다고 하면서 사퇴를 거부하고 이날 회의에 빠져들었다.

《새누리당》 내에서 친박계와 비박계가 한치 양보 없는 싸움을 벌리는 것은 류례없는 일로서 여론들은 그것이 앞으로 있게 될 《새누리당》의 전당 대회와 관련이 있다고 평하고 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새누리당》의 당규 약상 비상대책 위원회 사무총장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전당대회 준비과정에서 전권을 행사한다고 한다.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는 위원회의 의사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여 사무총장에게는 전당대회와 관련한 거의 모든 권한이 있는 셈이다. 사무총장자리가 이렇게 중요한 것으로 하여 친박계는 앞으로 있게 될 전당대회를 비롯하여 모든 문제에서 저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말썽 많은 탈당파의 원

본사기자 김철민

그들은 성과년봉제와 강제퇴출제를 계속 추진하는데 분노하여 투쟁에 뛸려나섰다고 밝혔다.

《저성파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가장 큰 저성파자는 박근혜》라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그들은 당국의 금융공

기업을 넘어 민간은행에 까지 성과년봉제를 강요하는 불법 행위와 국민에게 모든 실패의 책임을 들씌우는 시도를 그만두지 않을 경우 40만로동자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국회》 앞까지 행진을 하고 반로동자적인 성과년봉제의 즉시 철회와 조선업, 해운업의 경영위기를 초래한데 대한 진상규명, 장본인 처벌 등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국회》 앞까지 행진을 하고 반로동자적인 성과년봉제의 즉시 철회와 조선업, 해운업의 경영위기를 초래한데 대한 진상규명, 장본인 처벌 등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들의 《일팔복당》 문제를 구실로 삼아 비박계인 물인 사무총장을 내쫓으려 한 것이다. 친박계의 꾸준한 압력 속에 지난 23일 비박계인 사무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말았다. 《새누리당》은 이것으로 저들 내부 갈등이 봉합되었다고는 하지만 언론들 파전문가들은 앞으로 있게 될 전당대회와 최근 정계에서 둘러싸고 친박계와 비박계가 서로 상반되는 의견들을 표명하고 있는 것 만큼 《새누리당》 내에서 계파싸움이 다시 터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평하고 있다.

가습기 피해 대책 문제, 개성공업지구 문제, 《세월》 호진상해 결문제 등 민심이 요구하는 술한 문제들은 외면한 채 세월이 가는지 오는지도 모르고 자기 계파의 리익만 추구하면서 퍼터지는 싸움질을 하는 《새누리당》의 모습은 조선봉건왕조시기 당쟁만 일삼던 사색당파 무리들을 그대로 련상케 한다.

앞에서는 《민심의 회초리를 달게 받겠다》느니,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느니 하며 민심을 기만하고 뒤에서는 계파의 리익을 위해 싸움질만 일삼는 《새누리당》의 추악한 모습에 신물이 날대로 난 남조선인민들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로동악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40만로동자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다

남조선로동자 10만여명 공동투쟁 전개

그들은 성과년봉제와 강제퇴출제를 계속 추진하는데 분노하여 투쟁에 뛸려나섰다고 밝혔다.

《저성파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가장 큰 저성파자는 박근혜》라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그들은 당국의 금융공기업을 넘어 민간은행에 까지 성과년봉제를 강요하는 불법 행위와 국민에게 모든 실패의 책임을 들씌우는 시도를 그만두지 않을 경우 40만로동자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국회》 앞까지 행진을 하고 반로동자적인 성과년봉제의 즉시 철회와 조선업, 해운업의 경영위기를 초래한데 대한 진상규명, 장본인 처벌 등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개성 만월대에서 발굴된 고려 금속활자의 문화사적의의

얼마전 고려의 왕궁터인 개성 만월대의 서부건축 축조에서 4점의 금속활자가 드러났다. 금속활자들 중 3점은 대체로 가로 12~13mm, 세로 10~11mm, 높이 6~7mm의 직6면체 모양이며 한면에는 글자가 돋혀있다. 뒷면에는 구슬 또는 반구모양의 흙이 나 있다. 나머지 1점은 가로, 세로 크기가 각각 7mm, 6mm로서 다른 활자들보다 작지만 글자부분만은 잘 남아있다.

12~13세기로 고증된 금속활자들은 물흐르는 모양 《칙》, 지게미 《조》, 이름 《명》, 눈밝을 《명》이라는 글자들이 있다. 금속활자들의 성분을 분석한데 의하면 재질은 청동이라는것이 밝혀졌다.

고려봉건국가의 왕궁터인 만월대의 서부건축 축조에서 새로 금속활자가 드러난것은 커다란 역사적, 문화사적의의를 가진다.

그 의의는 첫째로, 금속활자의 출토지가 아주 명백함으로써 고려금속활자의 존재가 물질적으로, 객관적자료로서 증명되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우리 나라 금속활자의 존재를 고려시기의 문호 리규보의

《고금상정례문》발문 같은 문헌자료에 기초하거나 수집품금속활자인 《복》자나 이마 《전》자에 의거하여 론하였다. 그리고 현존하는 금속활자로 인쇄한 《직지심경》을 가지고 우리 나라 금속활자의 유구성과 출판문화의 우수성, 높은 수준에 대하여 이야기해왔다. 하지만 지난해에 1점, 올해에 또다시 4점의 금속활자가 같은 지층, 같은 장소에서 단꺼번에 출토됨으로써 우리 나라 금속활자의 존재가 실재한 물질적자료를 가지고 명백하게 밝혀지게 되었다.

지층에서 드러났다는 것은 금속활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며 그것도 한두점이 아니라 5점의 금속활자가 같은 장소에서 나왔다는 것은 유물이 수집품이나 류동유물이 아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그 의의는 둘째로, 우리 인민이 발전된 금속활자를 창조한 지혜롭고 창조적인 재능을 가진 인민이며 우리 나라가 높은 문명, 고도로 발전된 문화를 향유해온 슬기로운 민족국가였다는것을 다시금 보여주었다는데 있다.

이번에 발굴된 금속활자는 우리 나라가 12세기

전반기부터 13세기 전반 기경에 우수하고 발전된 금속활자를 가지고 높은 수준에서 출판문화를 향유해왔다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금속활자는 출판을 위한 수단으로서 도서에 대한 대량인쇄를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금속활자주조는 조각예술과 미술, 서예, 금속주조술, 종이와 먹 등의 생산과 리용을 전제로 하는 종합기술이 요구되고 적용된다. 바로 우리 나라는 이러한 발전된 기술을 소유한 높은 수준의 문화를 누리였다.

고려사람들은 12세기 이후 전기간 금속활자를 주조하여 면면히 사용해왔다. 그것은 1235년경의 《고금상정례문》과 함께 1377년의 청주 흥덕사에서의 《직지심경》의 출판인쇄와 1392년 서적점에서의 금속활자의 주조 및 사용에서 볼수 있다. 이러한 고려시기의 우수한 금속활자의 주조전통에 기초하여 15세기 발전된 금속활자가 창조될수 있었다.

그 의의는 셋째로, 세계문화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금속활자는 도이췰란드사람 J.G. 구텐베르크(1400~1468년경)가 1445년경에 라틴어성서인 일명 《구텐베르크의 성서》를 출판한 데 이어 보다 작은 글자로 1453년경에 같은 성서를 인쇄한것을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로 알려져왔다. 당시 구텐베르크가 만든 금속활자는 고씨크

문자(Gothic)로서 자획이 짙은 라틴어문자였다. 그에 비하면 이번에 새로 드러난 《전》, 《조》 등은 자획이 섬세하고 세련된 것이 도이췰란드의 금속활자보다 갑질이나 더 우월하다.

금속활자는 나무로 글자들을 새기고 진흙으로 주형을 만든 다음 거기에 녹여낸 금속재료인 구리물을 주입하여 만드는 것인데 나무나 거푸집의 정교성, 금속의 녹음정도에 따라 기포가 생기고 식으면서 활자가 축소되는 등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많아 대단히 만들기 힘들다.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는 유럽에서 양피지에 글을 쓰고 책을 만들거나 또는 나무활자를 이용하여 간단한 인쇄물을 찍을 때 그에 앞서 몇백년전에 발전된 금속활자를 주조하여 수많은 도서들을 인쇄해내었던 것이다.

우리 나라의 금속활자로 찍은 《직지심경》(하권)은 1972년 프랑스 빠리에서 유네스코의 주최밀에 《국제도서의 해》행사의 하나로 열린 《책의 역사》종합전람회에 전시되어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로 인정받았으며 그후 세계문화유산의 하나로 등록되게 되었다.

실로 새로 드러난 금속활자의 출현은 유구찬란한 우리나라 력사를 빛내이며 세계문화연구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커다란 사변으로 된다.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후보원사 교수 박사 후보원사 교수 박사 조희승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료리들중에는 조선김치도 있다. 김치는 여러가지 남새와 산나물 등에 양념을 섞어서 절산균의 도움으로 발효시킨 부식물이다.

원래 김치라는 말은 침재 또는 침장 즉 담그어서 저장한다는데로부터 유래되었다. 김치를 담그기 시작한 력사는 참으로 오래다. 《삼국사기》를 비롯한 여러 역사기록들에 의해 우리 선조들은 무우, 부루, 가지, 파, 마늘을 비롯한 남새와 조미료들과 발효식품인 술과 장, 젓갈식품들을 식생활에 적극利用하였다.

김치에 많이 들어있는 다당류와 리그닌은 위나장의 운동을 촉진하여 소화를 돋고 장에서 점성용액을 형성하여 클레스레를 농도를 낮추어주기때문에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비만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크다.

김치는 항산화작용과 항균작용이 뛰어난 식품이다. 김치의 재료들에는 비타민 A와 C가 많이 들어있는 데 이것들은 항산화기능이 뛰어나 몸안의 세포를 유해로운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여 로화를 방지

으로도 인기가 대단하다. 지난 2006년 어느 한 나라의 건강전문잡지는 조선김치를 세계5대 건강식품의 하나로 선정했다. 잡지는 김치에 비타민 A, C가 풍부하고 소화를 돋는 절산균이 매우 많으며 다당류와 리그닌이 풍부하여 저지방건강조절식품으로 된다고 하면서 이런 이유로 세계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되었다고 하였다.

김치에 들어가는 고추와 마늘의 생리활성물질들은 세포의 로화방지와 유해로운 균의 사멸, 진통완화, 면역증강 등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특히 마늘은 식중독과 위궤양의 원인균을 사멸시키며 에너지기대사를 활발하게 하므로 퍼로회복과 정력보강에 도움을 준다.

우리 나라 김치는 신선한 남새나 산나물에 자주성있는 양념이 잘 배합되어 알맞춤하게 익어 시원하면서도 쟁쟁한 맛, 향기로우면서도 상쾌한 맛, 새콤한 맛 등을 내는 완성된 식료품이다. 김치담그기 풍습은 세계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으며 오늘날 조선김치는 국제료리로 높은 평판을 받고있는 자랑할만한 음식이다.

본사기자



조선사람의 체질과 축구

어느 한 체육과학연구기관의 연구사는 조선사람의 체질이 축구에 적합하다는것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선 형태학적으로 볼 때 조선사람들은 웃몸과 물무게중심을 안전하게 취할수 있고 순간동작이 빠르며 다음동작에로 원만히 이행할수 있다는것이다. 일반적으로 구기종목에서 키가 크면 유리한 축면이 많지만 그렇다고 그

것이 경기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조건으로는 될수 없다.

과학적으로 밝혀진데 의하면 축구는 그 민족의 평균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잘한다고 한다. 조선사람들은 하체힘이 좋기때문에 물기와 단번련락에 의한 속도경기에 필요한 기술동작들을 소유하기 쉽다.

본사기자

람들은 생리학적견지에서 볼 때 운동신경이 빠르고 운동조절능력과 공간지각 능력이 발달되어있다.

특히 축구를 능숙하게 할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몸무게중심을 안전하게 취할수 있고 순간동작이 빠르며 다음동작에로 원만히 이행할수 있다는것이다.

일반적으로 구기종목에서 키가 크면 유리한 축면이 많지만 그렇다고 그

것이 경기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조건으로는 될수 없다. 밀어주세요. 제 반드시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신뢰를 얻겠습니다. 《정부》에 대한 여러분의 불신을 씻어내고 신뢰의 자본을 쌓겠습니다.》

《그렇게 만 된다면 야...》

《아무렴, 더 이를테 있겠소.》

박근혜는 주위에 빼빼이 물켜든 사람들을 향하여 한총 목소리를 높였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에겐 돌봐야 할 가족도,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습니다. 오로지 여러분이 저의 가족이고 여러분모두의 행복만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깨끗하고 바른 정치, 여러분과 아픔을 함께 하는 정치가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습시에 정적이 온 장안을 훑쓸었다.

선거유세라기보다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남다른 고통속에 살아온녀인의 감동적인 토로이여서인가. 그도 그렇지만 《국민을 가족삼아 아픔을 함께 하는 바른 정치로 행복시대를 열겠다.》는 후보자의 말이 사람들의 금선을 흔들어놓았기 때문이었다.

늙은이가 늦도록 유토시네요.》

각근한 정이 철철 넘치는 후보자의 말은 기존정치인들의 《세련된》 틀에서 벗어나 소박함이 다분히 묻어나는 이례적인 것이었다. 팀하영은 자기의 귀를 의심하였다. 걸음을 멈추고 건너다보니 후보자가 어떤 할머니를 마주하고 있었다.

(저 너자는 박근혜? ...) 그랬다. 《대통령》 선거유세에 나선 특이한 경력의 후보자, 박근혜네 행차였다.

(너자가, 그것도 황홀나이에 무슨... 괜한짓들이야.)

때가 되면 늘 있던 후보자의 유세요, 지지표구걸로 제가끔 화려하게 늘어놓는 공약따위에 별로 흥심이 없는 팀하영인지라 덤덤히 저자구력을 추스르며 셈을 놓았다.

(들어보나마나 뻔해. 같고같은 말치레겠지.)

무시해버리기로 작정하였으나 청각이 예민한 직업적특성이 그 결심에 훼방을 놓았다. 박근혜후보자가 사람들에게 전네는 인사말이 얼마쯤 사이를 끈 후보자는 연송 혀를 쳤다.

시장소음때문에 허리를 꺾고 할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여 후보자는 허리를 쳤다. 《엄마없는 어린것이랑

돌불래 정말... 이 손 좀 봐요, 얼마나 험한가.》

할머니의 두손을 어루쓸며 동행자들을 둘러보는 후보자의 실눈에 눈물이 피여올라 번뜩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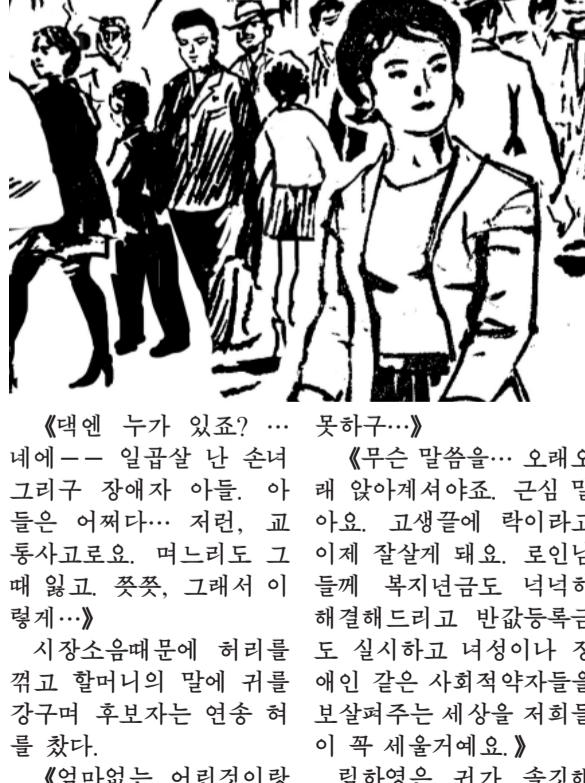
각박한 세상살이시름에 무더기 주름진 할머니의 얼굴이 꿈같은 인정에 실룩실룩 떨었다.

《손이야 뭐라우. 어휴, 그것을 걱정에 내 죽지두

못하구...》

무슨 말씀을... 오래오래 앉아계셔야죠. 근심 말아요. 고생글에 라이라고 이제 잘살게 돼요. 로인님들께 복지년금도 넉넉히 해결해드리고 반값등록금도 실시하고 너성이나 장애인 같은 사회적약자들을 보살펴주는 세상을 저희들이 꼭 세울거예요.》

팀하영은 귀가 출깃해 으로도 인기가 대단하다. 지난 2006년 어느 한 나라의 건강전문잡지는 조선김치를 세계5대 건강식품의 하나로 선정했다. 잡지는 김치에 비타민 A, C가 풍부하고 소화를 돋는 절산균이 매우 많으며 다당류와 리그닌이 풍부하여 저지방건강조절식품으로 된다고 하면서 이런 이유로 세계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되었다고 하였다.



단편소설

볼을 부르는 소리 (5)

글 오 송 심, 그림 김 윤 일

회포를 풀려고 싱글대던 그는 팀하영의 초조한 눈빛에서 짐작되는바가 있었는지 풍풍 갑자드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 그럼... 정현이 도?》

인정하기 싫은 현실을 재확인시키는 그의 말에 팀하영은 완강히 도리며리를 흔들고 총알같이 야무진 말씨로 캐물었다.

《지금 뭐하는거죠? 도대체 구조해요, 안해요?》

《글쎄, 한대두.》

《어디 하나나 보여요?》

《이럴 땐 군대전 경찰이건 민간인이건 몽땅 동원돼야 할텐데...》

《기막혀. 보도매체가 늘쌍 자랑하던 그 많은 최신형함선, 직승기 다 뭘 해요?》

《흠흠, 우리 힘에야 한계가 있잖나. 상부에 련락은 했는데 딱히 지시가 없구만.》

《세상에... 술한 애들의 목숨을 놓고 이럴수 있어요?》

《글쎄, 낸들 어찌라오. 또 그렇고그런 시장안의 소요이겠거니 하고 무심히 대하려던 팀하영은

한갓 말직인데. 청와대의 실권자라면 몰라도...》 팀하영의 머리꼴로 치솟던 화가 청와대라는 그 한마디에 다소 가라앉았다. 뭔가 할수 있다는 희망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면서 한녀인의 모습을 상기시켰다.

(내가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담. 박근혜...) 팀하영의 눈앞으로 청와대와 인연이 맺어지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두해 전 겨울이였다. 팀하영은 저물녘에야 사람들로 북작북작 끓는 시장에 들어섰다. 실력판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아들에를 푸짐한 음식상으로 축하해주려고 서둘렀건만 두루 일이 생겨 그만 늦어진 결음이였다. 그가 바삐 둘러보며 이것저것 꿀라 사느라고 여념이 없는데 갑자기 앞쪽에서 와야- 하는 함성이 터졌다.

(들어보나마나 뻔해. 같고같은 말치레겠지.) 무시해버리기로 작정하였으나 청각이 예민한 직업적특성이 그 결심에 훼방을 놓았다. 박근혜후보자가 사람들에게 전네는 인사말이 얼마쯤 사이를 끈 후보자는 연송 혀를 쳤다.

시장소음때문에 허리를 꺾고 할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여 후보자는 연송 혀를 쳤다. 《엄마없는 어린것이랑